

---

#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Adolescent's Growth Environment in Busan

---

김교정\*, 정규석\*\*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o-Jeung Kim(iwtbp@tu.ac.kr)\*, Kyu-Suk Jung(ksjung@ks.ac.kr)\*\*

---

###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현재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탐색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8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분석결과로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출생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와 경제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그룹인터뷰결과, 다문화청소년 현재의 문제로는 학습수준과 대인관계로 지적되었다.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욕구파악을 토대로 가족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화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당사자참여의 서비스 기획과 전문성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센티브제도 정착,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언되었다.

■ 중심어 : | 다문화청소년 | 당사자참여 | 전문가배치 | 지역관련기관네트워크 | 포커스그룹인터뷰 |

### Abstrac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Background Adolescent increases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show their growing environment in which they are brought up. So this study tries to have a questionnaire research with 588 adolescents and an focus group-interview with 8 service professional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developing supplemental programs, supporting systems such as the person participation in the step of the program planning, the community organization networking, professional placement, providing integration service and training program in a family unit.

■ keyword : | Multi-cultural | Background Adolescent Multi-cultural Level Education |  
The Person Participation | Community Organization Network | Focusgroup Interview |

---

\* 본 연구는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입니다.

접수번호 : #081006-003

접수일자 : 2008년 10월 0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1일

교신저자 : 정규석, e-mail : ksjung@ks.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청소년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결혼의 비중은 2005년도 기준 13.6%에 이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35.9%에 다다르고 있다(통계청 DB, 2006).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1987년도에 6,40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34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1].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새터민은 1990년도에 9명에 불과하였지만, 2006년 현재 새터민의 수는 1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6세 이상 20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새터민 아동·청소년의 수는 1,047명에 이르고 있다[2].

199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과 새터민 정착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새터민 유입현상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부터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삶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을 통해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문화적 차이·의사소통·부계 중심의 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한 가족 갈등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4].

최근의 연구동향으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의 현상설명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제언하고 있다[5].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는 일부 학교교육실태와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 이외의 환경과 활동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은 물론, 다문화 관련 정책의 개발과 학문적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부산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황과 서비스

### 2.1 다문화청소년현황과 서비스

다문화청소년 현황과악에 앞서, 전국 각 시·도의 국제결혼 현황에 부산 국제결혼 비율을 비교하자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005년 부산의 ‘외국인 부인-한국인 남편’의 국제결혼은 전국 31,180케이스의 4.5%인 1,408건으로 나타나 전국 여섯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남편-한국부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569케이스 4.8%로 네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표 1. 시·도별국제결혼현황

지역	빈도(%)	
	외국 부인-한국 남편	외국 남편-한국 부인
부산	1,408(4.5)	569(4.8)
서울	7,637(24.5)	3,870(32.4)
인천	2,015(6.5)	697(5.8)
경기	7,341(23.5)	2,621(21.9)
경북	1,489(4.8)	170(1.4)
경남	1,636(5.2)	252(2.1)
전국	31,180(100.0)	11,941(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5.

다음 [표 2]는 부산시 다문화청소년 재학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도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 다문화청소년 총 재학생은 588명이다. 이중 초등학교생이 43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이상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산 다문화청소년 재학현황

명/수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새터민	합계
초등	학생수	391	43	26	460
	학교수	142	25	10	177
중등	학생수	67	13	11	91
	학교수	46	10	8	64
고등	학생수	25	3	9	37
	학교수	20	2	3	25

자료: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료수정

2006년 말 기준으로 새터민 입국자는 약 9,500명으로 이 중 6-20세는 약 1,200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취학현황으로 다음 [표 3]는 통일부에서 2005년 조사한 새터민학생의 취학률이다. 초등학교 취학율 70.3%에서 고등학교로 취학율 10.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을 포함한 서울, 경기, 충남 등의 대도시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새터민 취학율은 평균 55.5%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권역을 벗어날 수록 취학율과 진학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새터민청소년 평균취학률

	초등학교(6-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18-21세)
취학대상	351명	224명	412명
재학생	247명	131명	43명
취학률	70.3%	58.4%	10.4%

자료 :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2005.8)

### 2.2 서비스현황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최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등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접 관련된 정책 또는 그들의 자녀 및 구성원들 각 개별적 차원의 지원 서비스들이 제정되고 있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보충학습지원프로그램 사업 또는 사례관리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타 기관보다 지역사회 기관들을 연계하고 조

정하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자치부의 활동과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시설 등의 부서는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서비스체계를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단위로 지역별 다문화청소년 관련프로그램사업에 대하여 모집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사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방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직접서비스를 전달역할을 하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해운대구와 부산진구의 두 곳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형태의 양육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직접서비스기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이러한 개별기관의 개별적 서비스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는 다문화가정과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의 충분성과 접근성 그리고 포괄적 성격을 갖춘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경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문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의 이들이 가족에서 가져야 되는 안정감, 지지감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모의 불화모습 등으로 인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8].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부정적인 경험은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과 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들 성장기의 지역사회에서 상담과 도움은 모국인 친구와 자신의 가족 친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가장 절대적인 성장환경이 되는 어머니 역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지역 등을 불문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환경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5].

어머니의 언어·문화적 경험의 특수성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장 환경이 비다문화청소년·청소년의 성장 환경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성장환경에서의 상이점을 크게 두가지로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첫째, 돌봄환경에서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서비스활용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돌봄주체는 어머니이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머니가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으로인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이라 이유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의 형성위축을 경험하며, 이를 위한 학교내 제도적인 지원이 한계상황이므로 정규교육과정에 진입한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으로서 친구와의 관계, 사제관계, 그리고 가족관계등에서도 성장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로인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표준화 되어 있다. 이들이 참여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12].

이상의 선행연구는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성장과정과 환경이 다문화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환경의 어려움은 가정교육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3][4].

## II. 조사방법

###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5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6]. 회수된 설문지는 총 406부로 이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4케이스를 제외하고 총 402부(69.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는 2007년 10월 중순에 실시하여, 사전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2007년 10월 말에 본 조사를 거쳐 분석을 실행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 연구조사로 사용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본 연구와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고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자문의뢰를 통해서 타당도를 갖추는 진행절차를 가졌다.

표 4. 설문조사내용

영역	세부내용
배경	성별, 태어난 해, 학교, 학년, 동거가족, 한국출생여부, 출생 국가, 부모님 국가, 경제적 형편, 건강 정도, 공부 정도
학교생활	희망교육수준, 어려운 과목, 좋아하는 과목, 친구 수, 고민거리, 상담대상, 필요도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자, 희망 참여활동, 과외지도활동
대인관계	학교친구 관계, 선생님 관계, 가족 관계

이러한 설문조사결과 분석에는 빈도분석과 함께 다문화청소년 출생국가별·다문화 재학유형별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차이검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유형이란 다문화청소년의 출생국가로 범주구분을 의미한다. 한국출생과 외국출생, 새터민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 재학유형은 정규학교 학제에 맞추어 초등·중등·고등학교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인에 따른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분산분석(F검증)과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행하여, 통계학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전문가포커스그룹인터뷰

현재 부산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에게 교육과 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평판법(reputation - method) 사용을 통해 대상자 8명을 표집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시간의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의 재확인과 이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반구조화된 그룹인터뷰내용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기본내용은 다문화청소년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2인에게 그 타당성을 의뢰하였다. 인터뷰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심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그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다음의 [표 5]와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구조화된 전문가그룹인터뷰 자료는 녹취를 하여 자료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자에 의하여 그룹인터뷰질문 중심으로 의미있는 진술문들을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2인을 그룹인터뷰에 참석하였고, 녹취내용과 분석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2차에 걸쳐 확인작업을 거쳤으며, 인터뷰에 참석하였던 전문가들은 녹취내용과 본 연구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5.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성별	연령	이름	소속기관	관련 경력	
1	여	38	윤**	복지관	2
2	여	44	류**	교육청	1
3	여	38	김**	민간기관	4
4	여	45	이**	교사	3
5	여	45	김**	교사	3
6	여	53	김**	다문화협의체	1
7	남	41	박**	대안학교	3
8	남	52	이**	교육청	1

### III. 자료분석

#### 1. 설문조사분석

##### 1.1 일반적인 특성

다음의 [표 6]은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응답자의 성별분포로 다문화 한국출생 남성은 51.3%, 새터민 청소년 여자는 71.4%, 외국출생 여성이 60.4%로 상대적으로 성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연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재학현황은 약 9%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새터민청소년 9% 정도가 본인 연령대보다 낮은 학제에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응답자의인구학적특성

유효빈도(%)

성별	한국출생	새터민	외국출생
남성	135(51.3)	9(25.7)	40(39.6)
여성	126(47.9)	25(71.4)	61(60.4)
무응답	2(0.8)	1(2.9)	.
초등학교	217(82.5)	23(65.7)	59(58.4)
중학교	27(10.3)	9(25.7)	27(26.7)
인문계고	4(1.5)	1(2.9)	4(4.0)
실업계고	5(1.9)	.	1(1.0)
대안학교	8(3.0)	1(2.9)	8(7.9)
기타	.	1(2.9)	2(2.0)
무응답	2(0.8)	.	.
합계	263(100.0)	35(100.0)	101(100.0)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한국, 외국 출생 모두 연령 중 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은 13세로 각각 16.8%와 20.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새터민청소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높은 15세의 경우가 1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모두 초등학교 연령대(7세-13세)가 85.5%, 57.2%, 6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다문화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모두 ‘부모님과 함께산다’

로 각각 77.2%와 65.7%, 77.2%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중 한국출생의 경우 '기타'라고 응답한 가족유형이 12.9%로, 외국출생과 새터민청소년은 '편부나 편모'의 가족유형이 각각 13.9%, 20.0%의 응답률 2순위로 나타났다.

1.2 다문화, 새터민청소년의 문화적 배경

부산 다문화청소년의 출생국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한국출생이라 응답한 경우는 65.9%, 새터민청소년은 11.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출생 이외의 각 출생국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20개의 다양한 국가에서 출생하였다. 일본이 23명, 러시아와 중국이 동일하게 17명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청소년의 경우는 북한이 74.3%, 대한민국이 11.4%, 중국 8.6%, 러시아와 모로코도 1케이스씩의 응답을 보였다.

한국이주연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문화청소년 중 외국출생의 경우와 새터민청소년의 경우 모두 '1년이상-2년미만'의 경우가 가장 높은 14.4%와 28.1%로 나타났다. 초기 정착적응시기의 중요성을 판단해 본다면, 이들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 출생국가 분석결과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한국으로 76.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외 총 17개의 국가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생국가 응답율은 한국 21.8%, 그 다음의 순으로는 중국이 17.7%, 일본이 17.1%, 필리핀 12.8%, 러시아 10.9%등의 순이다. 상대적으로 아버지 출생국가 중 한국이외의 나라는 총 17개 국가인데 비하여, 어머니 출생국가는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아버지 출생국가 경우, 한국대 한국이외의 비율이 284명:84명 인 것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출생국가 분석 결과의 경우 80명:2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출신의 아버지와 다문화배경 어머니가 가족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다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3 경제, 건강, 학업수준

부산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이 가지는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7]은 학업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로,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출생의 경우 '나에게 알맞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범주로 41.4%, 새터민청소년과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조금 어렵다'가 각각 48.6%, 38.6%로 나타났다. 세집단간 학업수준의 차이에 대한 F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출생유형별 학업수준관계검증

					유효빈도(%)
변수	범주	한국	새터민	외국	F
학업 수준	매우쉽다	19(7.2)	2(5.7)	5(5.0)	22.5**
	조금쉽다	46(17.5)	5(14.3)	11(10.9)	
	알맞다	109(41.4)	5(14.3)	37(36.6)	
	조금어렵다	80(30.4)	17(48.6)	39(38.6)	
	매우어렵다	6(2.3)	3(8.6)	9(8.9)	
	평균(SD)	3.1(.9)	3.9(1.1)	3.4(1.1)	
1) 매우 긍정 1점, 긍정 2점, 보통 3점, 부정 4점 매우부정 5점으로 측정함					
2) * P<0.05 ** P<0.01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음					

다음의 [표 8] 다문화청소년의 재학현황에 따른 경제수준, 학업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정, 상급학교 재학 중일수록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현재 대부분인 초등학교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미한 상급학교 재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의 기획이 요청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급학교의 학업이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다문화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들의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학률과 재학율이 낮아진다'는 연구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7].

표 8. 재학현황에 따른 차이검증

변수	범주	학교구분			F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 제 수준	매우잘산다	15 (5.0)	2 (3.2)	0 (0.0)	3.2*
	잘사는편이다	70 (23.4)	12 (19.0)	1 (6.7)	
	보통이다	177 (59.2)	38 (60.3)	10 (66.7)	
	못사는편이다	33 (11.0)	7 (11.1)	4 (26.7)	
	매우못산다	4 (1.3)	4 (6.3)	.	
	평균(SD)	2.8 (0.7)	3.0 (0.8)	3.2 (0.6)	
학 업 수준	매우쉽다	24 (8.0)	2 (3.2)	0 (0.0)	3.6*
	조금쉽다	56 (18.7)	5 (7.9)	1 (6.7)	
	나에게알맞다	118 (39.5)	21 (33.3)	5 (33.3)	
	조금어렵다	85 (28.4)	32 (50.8)	7 (46.7)	
	매우어렵다	11 (3.7)	3 (4.8)	2 (13.3)	
	평균(SD)	3.1 (1.2)	3.5 (0.8)	3.7 (0.8)	

1) 매우 긍정 1점, 긍정 2점, 보통 3점, 부정 4점 매우부정 5점으로 측정함  
 2) \* P(0.05) \*\* P(0.01)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음

1.4 부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다문화청소년이 힘든과목, 고민거리, 필요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이다.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장 힘든 과목으로는 수학이 39.1%로, 외국출생은 역사 30.0%, 새터민청소년은 영어가 58.8%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문화청소년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이다. 세 집단 모두 가장 큰 고민거리로 모두 '학교성적'을 선택하였다. 각각의

응답률은 26.6%와 34.3%, 31.7%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을 제외하고 그 다음 순으로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 경우 '외모' 범주가 18.3%,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 그리고 새터민청소년의 경우 모두 2순위가 '수업을 알아듣지 못함'이라는 범주로 나타났다.

표 9. 힘든과목 · 고민거리 · 필요서비스

변수	범주	유호빈도(%)			
		한국출생	새터민	외국출생	
힘 든 과목	국어	45(17.6)	7(20.6)	27(27.0)	
	역사	59(23.0)	8(23.5)	30(30.0)	
	수학	100(39.1)	9(26.5)	29(29.0)	
	영어	99(38.7)	20(58.8)	28(28.0)	
	사회	68(26.6)	12(35.3)	25(25.0)	
	과학	43(16.8)	5(14.7)	23(23.0)	
	컴퓨터	34(13.3)	5(14.7)	8(8.0)	
	기타	39(15.2)	.	19(19.0)	
	고 민 거리	한국어미숙	5(1.9)	3(8.6)	5(5.0)
		수업못이해	11(4.2)	5(14.3)	12(11.9)
학교성적		70(26.6)	12(34.3)	32(31.7)	
집단따돌림		1(0.4)	.	3(3.0)	
친구문제		28(10.6)	.	11(10.9)	
가정환경		7(2.7)	2(5.7)	2(2.0)	
외모		48(18.3)	2(5.7)	7(6.9)	
가정문제		7(2.7)	.	2(2.0)	
학교선생님		13(4.9)	1(2.9)	3(3.0)	
기타		62(23.6)	8(22.9)	17(16.8)	
필 요 서 비 스	무응답	11(4.2)	2(5.7)	7(6.9)	
	한국어학습	19(7.2)	3(8.6)	26(25.7)	
	한국문화학습	12(4.6)	1(2.9)	6(5.9)	
	학습지도	77(29.3)	13(37.1)	24(23.8)	
	진로상담	24(9.1)	3(8.6)	5(5.0)	
	문화취미활동	64(24.3)	4(11.4)	12(11.9)	
	개인고민상담	13(4.9)	.	2(2.0)	
	문제행동개선	.	1(2.9)	1(1.0)	
	직업소개	5(1.9)	1(2.9)	1(1.0)	
	직접경제도움	15(5.7)	2(5.7)	3(3.0)	
기타	28(10.6)	5(14.3)	16(15.8)		
무응답	6(2.3)	2(5.7)	5(5.0)		

고민거리 상담대상의 응답으로 '가족' 범주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률로는 다문화청소년 58.9%, 새터민청소년 48.6%, 외국출생의 경우 62.4%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역시 세 집단 모두 '친구나 선배'로 응답을 하였다. 응답률은 각각 20.9%와 20.0%, 1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학습지도'였다. 각각의 응답률은 29.3%와 37.1%였다.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25.7%가 '한국어학습'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순으로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은 '문화취미활동'이 24.3%로

나타났다. 새터민청소년의 경우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문화취미활동 12.5%,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습지도’에 23.8%응답률을 보였다.

국내외 출생, 새터민청소년의 다문화청소년의 장래 희망학교에 대하여 ‘대학교’라고 진학희망을 밝힌 응답률이 각각 53.6%, 60.0%, 5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좋아하는 과목으로는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각각 38.7%, 61.8%, 외국출생은 수학과 컴퓨터 과목이 동일하게 35.0%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다문화·새터민청소년의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범주가 모두 ‘3명 보다 많다’로, 각각 73.4%와 74.3%, 81.2%로 나타났다.

1.5 부산다문화, 새터민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돌봄 제공자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로 각각 70.7%, 71.4%, 76.2%로 나타났다. 세집단간 돌봄 제공자의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자냄’의 경우를 보면, 28.4%와 28.5%, 30.7%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0]은 다문화청소년이 정규수업 외 참여하고 싶은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표 10. 참여우선순위

범수	범주	가중치총점		
		한국출생	새터민	외국출생
참여하고 싶은 활동	교과관련	192	19	83
	예능분야	263	28	92
	체육분야	332	44	102
	영화연극분야	131	539	234
	대중음악분야	53	10	36
	직업분야	132	17	44
	여가오락	86	25	36
	컴퓨터관련	208	27	73
	자원봉사활동	36	4	7
	기타	35	10	23
없다	43	2	19	

1순위 가중치 빈도\*3 2순위 가중치 빈도\*2

[표 11]는 학습관련과외활동 분석결과이다. 세 집단 모두 ‘교과목 학원활동’이 가장 높은 46.4%, 28.6%, 44.6%의 응답률을 보였다. 세집단간 과외활동으로 복지관과 예체능학원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새터민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많이 복지관 활동을 하고 한국출생·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복지관 활용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학원의 경우 한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이 31.9%로 새터민의 17.1%, 외국출생 다문화청소년이 18.8%로 그 차이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외활동이 없는 경우도 14.4%와 11.4%, 23.8%로 나타났다.

표 11. 학습관련 과외활동 여부 유효빈도(%)

과외여부	한국출생	새터민	외국출생	카이스퀘어 검증
가정교사	25(9.5)	9(25.7)	9(8.9)	n.s.
학습지	46(17.5)	3(8.6)	16(15.8)	n.s.
교과학원	122(46.4)	10(28.6)	45(44.6)	n.s.
예체학원	84(31.9)	6(17.1)	19(18.8)	20.8**
복지관	14(5.3)	7(20.0)	4(4.0)	25.9**
지역아동	4(1.5)	2(5.7)	2(2.0)	n.s.
기타	29(11.0)	6(17.1)	15(14.9)	n.s.
없다	38(14.4)	4(11.4)	24(23.8)	n.s.

전체 응답자중 각 과외활동 참여해당자 %  
\* P(0.05) \*\* P(0.01)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음

1.6 대인관계

다문화유형별, 재학현황별 친구, 교사, 가족관계 분석 결과이다. 세집단간 모두 긍정적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2]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이다. 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는 모두 세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절한 발달단계와 발달특성이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 70%이상이 초등학교 연령층이며 이들의 정서·사회성 발달은 가족과 가까운 관련 인물들과의 대인관계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대



인관계의 긍정적 형성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며, 앞으로의 발달에 있어서 계속 누적되는 상태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분석결과, 경제적수준이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함이 인정되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경제수준을 하나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 또는 개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양육환경 구성과 같은 간접서비스와 주 양육자에 대한 자활과 같은 경제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표 12. 경제적 상황에 따른 대인관계

유효빈도(%)

변수	범주	경제구분			F검증
		잘산다	보통이다	못산다	
친구 관계	매우좋음	57(56.4)	71(28.9)	12(23.1)	13.3**
	좋음	29(28.7)	88(35.8)	16(30.8)	
	보통	12(11.9)	80(32.5)	20(38.5)	
	나쁨	3(3.0)	5(2.0)	1(1.9)	
	매우나쁨	0(0.0)	0(0.0)	3(5.8)	
	평균(SD)	1.6(0.8)	2.1(1.0)	2.3(1.0)	
사제 관계	매우좋음	53(52.5)	66(26.8)	8(15.4)	10.8**
	좋음	30(29.7)	115(46.7)	22(42.3)	
	보통	18(17.8)	59(24.0)	20(38.5)	
	나쁨	0(0.0)	1(0.4)	1(1.9)	
	매우나쁨	0(0.0)	3(1.2)	1(1.9)	
	평균(SD)	1.7(0.8)	2.1(1.0)	2.3(0.8)	
가족 관계	매우좋음	71(71.0)	132(53.7)	16(30.8)	10.7**
	좋음	23(23.0)	76(30.9)	21(40.4)	
	보통	4(4.0)	32(13.0)	12(23.1)	
	나쁨	1(1.0)	4(1.6)	0(0.0)	
	매우나쁨	0(0.0)	1(0.4)	1(1.9)	
	평균(SD)	1.4(1.0)	1.7(0.9)	2.3(1.6)	

1) 매우 긍정 1점, 긍정 2점, 보통 3점, 부정 4점 매우부정 5점으로 측정함  
 2) \* P(0.05) \*\* P(0.01) n.s.(not significant)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음

## 2.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

### 2.1 다문화청소년이 가지는 문제와 심각성

참여한 전문가가 인정하는 다문화청소년 고민거리는 '학교성적'과 '대인관계'이다. 이두가지 범주는 그들이 가지는 다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설문결과분석에서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이들이 가지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구참여 전문가 역시 성장기의 다문화청소년이 가지는 학업고민과 대인관계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언급하였다.

- 동남아권이라 표가 나는 아동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을 때, 아동은 본인의 외모도 외모지만 엄마의 외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더 신경을 쓰더라구요(전문1-3).
-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었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문화적인 환경갭과 경제적어려움 이중의 어려움을 겪죠(전문3-5).
- 일반적인 이야기는 곤잘 하는 아이들도 수업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은 영 알아들을 수 없다고 표현하며 탄짓을 많이 하죠(전문4-10).

이중의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식적 객관적 정보 및 정서적 지지는 정규교육과정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장환경에 비해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이 그들의 자녀에게 가지는 지나치게 높은 기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했다.

- 엄마중심과 돌봄중심의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성장 발달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전문 5-20).
- 아이들을 위한 상담 메뉴얼이 학교에 보급이 되어야 한다. 계속 자라는데 연구자들의 연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들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라라고 청년이 된다(전문 7-24).
- 새터민 학부모의 학구열은 강남권을 능가한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하고 새터민 특별전형이라 중산층으로 안정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전문 5-27).

### 2.2 서비스와 서비스대상

다문화청소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학업지원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으로 이들과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진술하였다. 우리의 입장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발에 맞지 않는 고무신을 자꾸만 신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 학업지원을 하려해도 적절한 도구, 예를 들자면 사전등과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담또한 언어가 통해야 ... 학습과 관련된 언어를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내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해요(전문6-31).
- 비록 언어적소통의 문제가 있으나, 아이들끼리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전문5-32).
-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참여하고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니 언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짐(전문4-38).

같은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성장환경, 특히 출생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에서 고학년으로 갈 수록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앞선 설문지양적 분석에서 지적된바 있다. 실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 기존의 서비스들은 천편일률적이다. 성장해 가는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맞지 않다 튀기라고 놀리는 아이와 사이좋게 지내겠는가? 서로간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전문 7-44).
- 정규교육에 들어가지 않은 새터민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전문3-58).

- 경제적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이들에게도 지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전문 6-65).

### 2.3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필요

실제 다문화청소년은 성장환경으로서 가정과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인 지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이들의 대인관계와 성적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문지 결과분석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장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관 지지도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동시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도 연구참여자는 한목소리로 서술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평균 2년 정도면 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고 연구참여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보다 이들의 가정생활 환경이자 교육환경이 되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 피드백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족통합지원서비스로 전향해야 할 필요를 가진다는데 동감했다.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제지원 서비스를 위한 자활사업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문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 애들만 교육시킨다고 되나요? 애들이 집에가서 보고, 듣고 잘못하면 다 틀리는 것어요. 학교에서 복지관에서 아무리 뭐라해도 집에가서 아니면 아닌 거지요(전문 5-80).
- 노동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미싱수업을 하겠다 하였으나, 미싱 같은 것은 현실성이 없다. 20년 장인으로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엄마들에게 사기꾼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전문7-85).
- 실제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가족이 화목한 아이들은 뭐든 자신감 있어요. 다문화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실례로 그런 아이들은 외모가 틀린 엄마를 본인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그런아이들은 금방

어울려 아이들속에 끼어들어요(전문6-90).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욕구과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제공 서비스 영역은 학습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족과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 프로그램 기획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적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또한 이들을 위한 기존 서비스가 '중복성', '이벤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 서비스 조직간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역할명시로 서비스 중복성을 방지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처음부터 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다. 보통 서비스 제공시 새터민이나 다문화 관련해서는 객관적 욕구과약이 부족하지 않았나(전문 7-91).
- 여가부, 청소년, 복지부, 교육부 따로 노는 정책,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고, 여기저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중복되는 서비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전문 4-100).
- 서비스가 이중 삼중으로 실시되고, 기관별 업무협조 형식으로 요구되어 거절하지 못하는 지경이다(전문5-103).
- 학습지원은 어디에서, 부모님문제는 어디에서, 등과 같이 전문서비스가 필요하다. 기관들의 전문성이 확실해 지면 연계하는 것이 용이 해진다. 기관별 차별성필요하다(4-110).

#### 2.4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와 정책지원의 필요

그리고 이러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의과정에 다양한 욕구에 따른 다양한 조직간의 연계, 다문화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서비스, 당사자의 서비스 참여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실무자들은 지친다. 교사나 실무자들이 열심히 앞 선해주고 도와줘도 새터민들은 안가고, 그만두고 하니...(전문3-72).

- 아이들을 돌볼 때, 이것저것 다 해주었는데, 왜 저렇게 몰라주나, 새터민이나 다문화나 애정을 부은 만큼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전문5-73).
-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면 지치게 된다. 변화되는 과정은 극히 적을 수 있다.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쏟아 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전문7-75).
- 새터민에 대한 관심, 다문화에 대한관심이 최근이다. 서울은 10년쯤 된 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은 거의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 실무자도 새로운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옮겨버리게 된다(전문3-78).
- 단체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어렵다.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거의 개인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전문3-79).

## IV. 결론

### 1. 조사결과 요약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출생 263명, 외국출생 101명, 새터민 35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문지 조사결과, 동일한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제수준과 출생유형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과 대인관계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현재 이용서비스 또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학유형이 높아 질수록,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성장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심의 서비스,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에서 재학유형별, 출생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마련의 시급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들의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 서비스에 대한 방안으로 동화주의적 차원이 아닌 다문화차원의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통합서비스지원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전문가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 2.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본 연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적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연령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운영방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 내 프로그램은 자칫 잘못된 운영된다면 '지나친 배려' 또는 '열등감 조성'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8].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자원과 인력풀(Pool)구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 질 관리와 성과의 측정과 관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9].

둘째, 기초 한국어활용에서 국어교육까지 수준별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현행의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되었던 한국어활용차원의 기초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수준별 국어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표준화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10]. 교육과정개발과 서비스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배경의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국어교육과정 이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 교육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성과에 대하여 부모의 즉각적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1].

셋째, 다문화가족의 건강성향상을 위한 가족단위의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가족성원 역시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가족의 건강성을 위해 부부교육, 부·모자교육, 부모교육, 형제자매교육, 자조모임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단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실행, 평가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성장과 적응의 중요한 환경 중 절대적 요소이다. 본 조사 분석 결과에

서도 다문화청소년의 고민거리 제 1상담대상이 가족이었다. 그러나 부모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주 정착 기간이 짧은 부모일수록 이질적 교육운영,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줄 수 없다[10].

넷째,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전문활동'의 확대와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고민 상담대상이 가족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이런 활동이 심리적 지지 이상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전문적이고 객관적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현재 지역사회 이러한 자원은 부족하다[12]. 또한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가족이외의 지역사회 기존의 자원에 접근하고 연계하는 것 역시 다문화청소년과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망체계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고리가 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대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이중적인 과업'이 아닌, 개인적 희생과 노력의 차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정착화 할 필요가 있다[13].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를 인정하고 참여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인식전환 교육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극복 및 관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14]. 이러한 교육과정 이외에도 함께 참여를 통해서 서로간의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행사 기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 다문화가정이 주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다문화에 대하여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친화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15].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다문화청소년의 당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질실하면서 분석되지 못했던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실태분석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단위 차원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해기반 구축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다문화청소년과 가정의 직접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찾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기획, 실천, 평가 과정에서 이념적 지향성 제공을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현재 '전문가 지향적 관점'의 서비스 프로그램 한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이 참여하는 '당사자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관련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희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5.

[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5.

[3] 설동훈, 외국의 이민자 정책 비교 및 국내적용가능성 탐색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 세미나자료집.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4]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2004.

[5] 오성배,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제32권, 제3호, pp.61-83, 2005.

[6] 부산광역시교육청, 내부자료, 2006.

[7] D. R. Atkinson, G. Morten, and S. W. Sue,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cross-cultural perspective* (3rd ed.). Dubuque, IA: William C. Brown, 1989.

[8]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pp.137-157, 2006.

[9] J. S. Coleman, Rawls, and Nozick, "Educational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Vol.43, No1, pp.121-128, 1976.

[10] 서 혁,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학연구소 제10회 심포지엄, 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6.

[11] E. K. Thorp,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with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families," *Intervention in School & Clinic*, Vol.32, No.5, pp.261-269, 1997.

[12]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13] D. M. Gollnick and P. C. Chinn,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4th ed.). NY: 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94.

[14] 청소년개발원, *한국의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15] 김성식, *교육기회 획득에 대한 가정배경과 학교경험의 영향*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06.

저 자 소 개

김 교 정(Kyo-Jeung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e-Learning, 복지컨텐츠

정 규 석(Kyu-Suk Jung)

정회원



- 1999년 8월 : 미국 Ohio 주립대  
사회사업학 박사
- 현재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복지컨텐츠